



프레지던트컵 세계연합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미국과 세계연합팀의 골프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 대표로 나서는 최경주·양용은·김경태 등 세계연합팀이 16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 연습구장 ... 이젠 삼성 안부러워”

타이거즈의 합평 전용구장 시대가 열렸다. KIA 타이거즈의 광주 잔류군 선수단이 16일 합평 전용구장에서 첫 훈련을 가졌다. 이날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KIA 타이거즈가 호남 중학 야구대회가 열리면서 KIA 잔류군이 합평 구장에 처음 입장했다. 지난해 5월 착공에 들어간 지 1년6개월 만이다. 전용구장은 합평 학교면 곡창리 일대 2만4000평 부지에 건립되고 있으며 내야 연습장, 실내 연습장 그리고 클럽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클럽하우스공사는 진행중이지만 그라운드와 덕아웃 공사는 완료됐다. 200억원이 투입된 구장인 만큼 '최고의

KIA 타이거즈 합평 전용구장서 첫 훈련 내야·실내 연습장, 클럽하우스 등 완벽

연습구장'이라는 것이 선수단의 반응이었다. 주경기장의 규모부터 남다르다. 영산장을 내려다보는 주경기장은 좌우 펜스까지 100m, 중앙 펜스까지 거리는 120m이며, 좌우 폭이 넓다. 덕아웃 의자와 외야 펜스도 최고급 자재를 투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강조했다. 홍세완 코치는 "그동안 열악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느라 선수들이 고생 많았다.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경산 구장이 최고의

구장으로 꼽혔는데 앞으로는 원정팀 선수들이 이곳을 가장 부러워할 것 같다"면서 "좋은 시설이 갖춰진 만큼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선수단을 이끌고 훈련에 나선 코치진들은 꼼꼼하게 경기장 세부 시설을 살피면서 문제점을 확인했다. 조규제 코치는 "볼펜의 지붕이 낮고 기울어져 있다. 비가 올 경우 불펜 흙이 쓸릴 수 있다. 좌측 외야 펜스도 밖으로 넓게 뻗어

있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이 들어섰다. 클럽하우스까지 들어서면 체계적으로 훈련이 진행 될 것이다. 선수들은 밤낮없이 훈련을 할 작음을 해야 할 것이다"고 선수단에 엄포를 놓기도 했다. KIA는 내년 시즌부터 합평 전용구장에서 2군 경기를 치르게 된다. 전용구장의 야심작인 실내 연습장과 클럽하우스 오픈은 내년 7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가로·세로 50m, 높이 15m 규모로 건립될 실내 연습장은 투구·타격·수비·작전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어지며, 'T' 형태의 클럽하우스는 객실과 라커룸, 식당, 휴게실, 헬스장, 의무실 등으로 꾸며진다. /합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우즈 맞대결

프레지던트컵 1R 스코트와 한 조 ... 양용은·김경태도 출전

미국과 세계연합팀의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 첫날 라운드에서 최경주(41·SK텔레콤)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맞대결을 벌인다. 17일부터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최경주는 애덤 스코트(호주)와 한 조로 첫날 포섬(2인1조로 공 1개를 번갈아 치는 방식) 경기에서 미국의 우즈-스티브 스트리커를 상대한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우즈와 호흡을 맞춘 캐디 스티브 윌리엄스(뉴질랜드)가 우즈와 결별한 뒤 스코트의 골프백을 메고 있어 전 세계 골프팬들의 시선은 최경주-스콧과 우즈-스트리커의 맞대결에 쏠릴 전망이다.

윌리엄스는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우즈를 겨냥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내뱉어 이번 대회에서 둘의 동반 라운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양용은(39·KB금융그룹)과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는 같은 조로 데이비드 톰슨-헌터 테이헌과 맞대결을 벌인다. 이번 대회는 첫날 포섬 6경기, 둘째 날 포볼(2인1조로 각자 공을 쳐 좋은 점수를 팀 성적으로 삼는 방식) 6경기가 열린다. 사흘째는 포섬과 포볼 5경기씩, 마지막 날에는 싱글 매치플레이 12경기가 벌어진다. SBS와 SBS골프가 나흘간 주요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희경 LPGA 신인상

한국 선수문 8번째

'필드의 슈퍼모델' 서희경(25·하이트)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1시즌 신인왕 수상자로 확정됐다고 L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가 16일 밝혔다. 서희경은 이번 시즌 20개 대회에 출전해 신인왕 포인트 655점을 획득, 17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그룹 타이틀헌더스 결과에 관계없이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2위는 297점을 쌓은 크리스탈 볼튼(네덜란드)이다. 지난해 3월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했던 KIA 클래식에서 정상에 올라 올해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에 뛰어든 서희경은 US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10위 안에 세 차례 진입하며 상금 61만1347달러(상금 순위 17위)를 벌였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것은 2009년 신지애(23·미래에셋)에 이어 2년 만이다. 역대 통산으로는 2007년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의 수상을 포함해 8번째 한국인 LPGA 신인왕이 탄생했다. 올해의 선수상은 이미 청아니(대만)가 2년 연속 수상을 확정 지었다. 평균 타수 부문에서도 지금까지 69.56타를 기록한 청아니가 70.54타로 2위에 오른 최나연(24·SK텔레콤)을 앞서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1위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p>아이나비 만도네비 모비스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투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투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p>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p> <p>만도 블랙박스 BN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네비 매립 = 17만원 ⇒ 12만원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p>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p> <p>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p>	<p>도난경보기 이지카 스타트버튼</p> <p>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에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합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770B 40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7 17만원 ▶ E1 7만원 ▶ E2620 10~14만원
--	---	---